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희생자

3차 범국민 추모대회

일시: 2월 7일 (토) 오후 4시

장소: 청계광장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추모제가 열립니다.

2월 7일 오후4시 청계광장으로 모입니다!

검찰은 수사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용산 철거민 다섯 분이 돌아가신지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27명의 검사와 1백여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열흘 넘게 조사한 결과는 거짓투성이입니다. 용역들과의 무선기록이 폭로되었는데도 경찰은 진압현장에 용역은 없었습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진압 계획을 직접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이 난 이후 망루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망루 안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는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조작일 뿐입니다.

김석기 경찰청장을 구속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의 내정철회를 할 때가 아니고, 진상조사가 먼저”라며 사과조차 없습니다. 30여명의 철거민을 잡아들이겠다고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1천 7백여 명의 무장한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이 새끼 잘 걸렸네”라며 발로 짓밟았습니다. 5명의 철거민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러한 참상의 최고책임자인 김석기를 구속하는 데 무슨 진상이 더 필요합니까.

범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참상을 책임지기는 커녕 헌병대를 동원해 민간집회를 감시하고, 수 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 추모제를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이 치졸한 방해도 고인을 추모하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행렬을 막지 못했습니다. 1월 31일 ‘범국민 추모대회’에 1만 여 명이 모이고, 2월 1일 국민대회에도 2만 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인들이 시국 미사, 기도회, 법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의 1퍼센트가 전체 사유지 60퍼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권은 인권입니다. 그러나 집 부자 10명이 5천5백8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단 1퍼센트가 전체 사유지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 주거권은 부자들에게만 보장된 권리일 뿐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업체들의 돈벌이를 위해 평범한 서민들의 인권은 참혹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

종부세 폐지, 강부자 내각,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방송장악 기도, 대운하 강행, 경쟁물입교육 등 이명박 집권 1년 여 동안 계속된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들은 이번 살인 만행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서민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살기 위한 저항을 테러리스트로 호도하는 민중의 적, 이명박 정부에 맞서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2월 7일 청계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첫째,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규탄 촛불추모대회**

둘째, 분향소 조문에 함께합니다.

순천향병원 또는 용산 참사현장에서 조문하실 수 있습니다.

mbout.jinbo.net 접속하여 인터넷 분향 참여 및 추모 댓글 남깁니다.

셋째, 청와대 및 경찰청 항의 글 남기기

살인 만행을 자행한 경찰과 정부에 항의합니다.

**넷째, 추모와 규탄 행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후원계좌_ 농협 067-02-302163 (예금주: 이종희)